

인터넷 신조어 ‘被XX’ 고찰

- ‘詞語模(단어틀)’ 이론을 중심으로 -

박흥수·고은미*

目 录

1. 서언
2. ‘被 XX’의 출현
3. ‘模標’ ‘被’ 분석
4. ‘模槽’ ‘XX’ 분석
5. ‘被 XX’ 어휘군 분석
6. 결어

1. 서언

본 연구는 인터넷 신조어 ‘被XX’의 의미적, 구조적, 화용적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피동표지 ‘被자구문’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어휘 단위로서 ‘被XX’에 대한 독립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곤(2006)은 사이버 언어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제3의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생산성이 높아서 어휘부의 공식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사이버 환경과 사용자, 의사소통 체계와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¹⁾

최근에 인터넷과 매체를 중심으로 ‘被就業’, ‘被自殺’, ‘被高鐵’와 같이 ‘被XX’구조의 신조어가 대거 등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피동표지인 ‘被’의 용법과

*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教授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1) 시정곤(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권, 216-217쪽.

는 확연히 구분되는 용법으로 중국 국내에서는 통상 ‘新被字句(신 被자구문)’²⁾로 칭해지며, 높은 구어적 사용빈도로 인해 현재 신조어로 정착되었다. 2014년에는 마침내 『現代漢語詞典』의 제6판에 ‘被’의 새로운 의미 항목으로 수록되었다.

다음의 예문은 인터넷 매체에 등장하는 신조어 ‘被XX’가 사용된 대표적인 문장과 그 해석이다.

- (1) 大學畢業生“被就業”令誰蒙羞?(荊楚網 2016-06-28)
- (1) 대학 졸업생의 취업조작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나?
- (2) 小心黑客讓你“被自殺”!(科技世界網 2015-08-12)
- (2) 해커들이 당신을 자살로 위장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 (3) 老百姓被動車被高鐵, 真是政績害人啊!(微博)
- (3) 서민들이 강제로 고속철도를 타야하다니, 정치적 업적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1)에서 (3)의 예문에 사용된 ‘被’는 기존의 피동표지인 ‘被’와는 의미가 다르다. ‘被XX’를 단독으로 해석하면, ‘被就業’는 ‘이미 취업한 것으로 되다’, ‘被自殺’는 ‘자살한 것으로 되다’, ‘被高鐵’는 ‘강제적으로 고속철도를 타다’로 전통적인 피동표지 ‘被’와는 의미상 차이가 존재한다.

구조적으로도 피동표지 ‘被’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피동표지의 ‘被’구문의 형식은 NP₁ + 被+NP₂ + VP 혹은 NP₁ + 被+ VP로 VP의 V는 통상 타동사이다. 그러나 예문(1)에서 (3)의 ‘被’자 뒤의 ‘就業’, ‘自殺’는 자동사, ‘高鐵’는 명사이다. 또한 행위자를 나타내는 NP₂ 도 ‘被’뒤에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위의 (1)(2)(3)의 예문만 아니라 ‘被自願’, ‘被滿意’, ‘被富裕’, ‘被代表’, ‘被增

2) 현대 중국어의 전통적인 피동 문형은 주어가 수동자이며, ‘被’가 이끄는 명사는 행위자이고, 술어 동사는 타동사로, ‘被’자는 직접 동사 앞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격식을 벗어난 ‘被自殺(自殺은 자동사)’와 ‘被小三(小三是 명사)’과 같은 문형을 ‘新被字句(신 被자구문)’이라고 지칭한다. (劉倩(2014), 「“新被字句”的心智研究」, 山東外語教學, 23쪽.)

長’, ‘被合法’, ‘被捐款’등 다양한 ‘被XX’ 어휘군이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被XX’는 2009년 이후 다량으로 생겨난 인터넷 신조어로 피동표지에서 파생된 의미유추 기제를 가지고 있다. ‘被XX’ 어휘군은 문맥상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와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신조어 ‘被XX’ 어휘군에서 ‘被’가 의미상, 결합상 기존의 피동표지 ‘被’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被XX’를 분석해본다.

중국내 ‘被XX’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曾丹·胡蝶(2010)은 ‘被XX’를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羅敏(2010)은 ‘被’의 준접사화 경향³⁾을 논의하였으며, 趙艷梅(2012), 孫莎莎(2012), 劉倩(2014)는 ‘被XX’의 통사적 특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鄭月琴(2014)는 Fillmore의 ‘프레임 의미론(框架語義學)’의 관점에서 ‘被XX’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중국 내에서 ‘被XX’ 연구가 ‘新被字句(신 被자구문)’로 보는 통사적 측면에 집중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신조어라는 측면에서 접근, 李宇明的 ‘詞語模(단어틀)’이론⁴⁾을 분석 틀로 하여, ‘被XX’를 의미적, 구조적, 화용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被XX’가 어휘적 지위를 획득한 언어라는 것을 전제 하기 위해 북경어언대학 교 코퍼스(BCC)⁵⁾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에 출현한 일련의 ‘被

3) 어휘적으로 ‘被XX’에서 ‘被’는 접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준접사(類詞綴), ‘XX’는 어근으로 보아 합성어 중 파생어로 보는 관점이다.

4) ‘詞語模’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학자는 李宇明(1999)으로 그는 대다수의 신조어는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어를 만들어 내는 틀과 같다고 했다. 이 틀은 대량으로 신조어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 형성된 신조어는 어휘군(詞簇)을 이룬다고 하였다. ‘詞語模’는 ‘模標’와 ‘模槽’로 구성되는데, ‘模標’는 단순어이며 ‘詞語模’의 고정적인 성분이고, 반드시 어휘 범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模槽’는 단순어 또는 합성어로 ‘詞語模’의 비고정적인 성분으로 화자의 주관적 표현의 수요에 따라 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李宇明, 『詞語模』,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校出版社, 1999.)

5) 북경어언대학 교 코퍼스(BCC)(<http://bcc.blcu.edu.cn/>)

XX' 관련 예문과 '被XX' 어휘군(총 110개)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被XX'를 신조어 생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시도로, 기존의 의미 연구와 통사 분석을 넘어서서 '被XX'를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인터넷 신조어로 인식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被XX'의 출현

'被XX'는 2009년 이후 대량의 어휘군을 생성해낸 인터넷 신조어 '詞語模'이다. 신조어는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말로, '被XX'는 기존의 피동표지 '被'에서 파생된 원래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나 용법이 추가된 넓은 의미의 신조어⁶⁾이다.

언어는 사회적인 산물인 동시에 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언어학자 홀블트에 의하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⁷⁾. 새로 생겨난 어휘가 유행한다면 이는 그 언어가 속한 사회의 단면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被XX'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해 발생하였고,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被XX'구조의 다양한 어휘군이 출현하게 되었다. '被XX'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신조어로 정착, 현재는 어휘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被XX'의 어휘군에 대하여 百度百科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 넓은 의미의 신조어는 원래의 조어방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조된 말과 원래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나 용법이 추가된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신조어는 새롭게 창조된 말만을 뜻한다.

7) 손영실(2010), 「현대중국어의 발생과 수사 조어법」, 중국학 연구, 51-53쪽.

8) 百度百科(<http://wapbaike.baidu.com/item>)(바이두 백과사전)

“反映出社會中的不正常現象，在網絡上走紅，是與社會現象相契合，也反映出我們強勢群體權力上的覺醒與無奈。”

（“사회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반영하며,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사회 현상과 결합되어 우리의 강한 권력에의 각성과 무기력을 반영하기도 한다.”)

“中國网民在“自殺”、“就業”、“增長”、“代表”等詞前加上“被”字，表達出沒有話語權的弱勢一方的無奈。這個詞語一面世就引來了网民和各网站的大討論。代表詞有被自殺、被增長、被代表、被自願、被就業等。”

（중국 네티즌들은 ‘自殺’, ‘就業’, ‘增長’, ‘代表’ 등의 단어에 접두사 ‘被’를 덧붙여서 발언의 기회가 없는 약자의 무력함을 표현해냈는데, 이 어휘가 출현하자 네티즌과 각종 사이트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어휘로는 ‘被自殺’, ‘被增長’, ‘被代表’, ‘被自願’, ‘被就業’ 등이 있다.”)

사용빈도가 높은 ‘被XX’의 대표적인 어휘군으로는 ‘被就業’, ‘被自殺’, ‘被自願’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 설명은 다음과 같다⁹⁾.

‘被就業¹⁰⁾’는 중국 특유의 부정적인 유머 중 하나이다. 당시 고등교육기관이 취업률을 통계 내는 상황에서 일부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취업을 조작하였다. 즉, 학교가 취업을 못한 졸업생한테 스스로 취업한 것처럼 꾸미라는 것이다.

‘被自殺’는 자살 동기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변고로 사망하고, 사망 현장에 자살의 흔적이 보여 타인에 의해 자살로 위장된 것을 가리킨다. 명백하게 타살의 정황인데 경찰이 자살로 판정하거나 자살시 자살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에 사용된다.

‘被自願¹¹⁾’은 스스로 지원해서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로

9) 百度百科(<http://wapbaike.baidu.com/item/>)

10) 교육부가 2009년 대학의 취업 상황을 발표, 올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0%로 2008년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수치가 발표된 뒤 많은 이들이 취업률의 진실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한 졸업생이 인터넷 댓글에 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업이 되어 있었고, 취업 협의서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명과 이 회사의 인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일부 대학은 졸업생들을 시켜 취업된 것으로 조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즉, 학교 측이 취업 못한 졸업생한테 스스로 협의서를 조작, 자신의 취업을 증명하라고 한 것이다.

11) 2009년 5월 『新京報』에 따르면, 重慶市銅梁縣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지원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활동이나 행사에 사용되며 이는 학부모들의 선택권 자체가 무의미함을 나타낸다.

상술한 ‘被XX’ 어휘군의 예를 통해 ‘被XX’의 의미는 자의가 아닌 타의, 강요와 외압에 의해 무언가를 당할 때 사용하며 이러한 어휘군의 사용은 국민들의 무기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被高鐵¹²⁾’, ‘被代表¹³⁾’, ‘被增長¹⁴⁾’, ‘被失蹤¹⁵⁾’, ‘被富裕’, ‘被捐款’ 등 수많은 ‘被XX’의 어휘군이 출현하게 되고, 높은 조어력과 사용빈도를 근거로 2014년 『現代漢語詞典』 제6판¹⁶⁾에 ‘被’의 의미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 내용은 “用在動詞或名詞前表示情況與事實不符或者是被強加的(含諷刺, 戲謔意)(동사 혹은 명사 앞에서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혹은 강제적인 것을 나타낸다, 풍자와 조롱의 의미 함축한다)”이다. 이를 정리하면 인터넷 신조어 ‘被XX’는 통사적으로 동사 혹은 명사 앞에 사용되며, 화용적으로는 상황

는데 학교로부터 9000위안의 기금을 내야한다고 통보받았다. 銅梁縣의 교육부 국장은 인터뷰에서 이 비용은 학부모가 스스로 원해서 납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 12) 被高鐵 : 무한과 광주 간에 고속철도가 운행된 후 북경-광주 노선에서 무한-광주와 심천-심천과 무한-장사의 모든 일반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다. 중단 후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일등석 780위안, 이등석 490위안의 비싼 고속철도를 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현상을 ‘被高鐵’라고 하였다.
- 13) 被代表 : ‘被代表’는 국민들의 의견이 몇몇 소위 대표라는 사람들에 의해 대표되어지나 진정한 민의는 결코 반영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 14) 被增長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민 수입 증가 수치에 대한 의문으로, 2009년 7월 29일 ‘夏余才’라는 한 네티즌이 모 인터넷의 블로그에 ‘被增長’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소위 ‘被增長’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통계 수치상 증가로 조작된 것이다.
- 15) 被失蹤 : 2008년 12월 《網絡報》의 기자 關鍵가 산서에 인터뷰를 가서 실종, 가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산서성 경찰은 입안하여 조사한 뒤, 초보적으로 실종 처리하고,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관여한다. 우리는 전력으로 진상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4일 후에 가족은 하북 경찰 측의 전화를 받고는 關鍵이 뇌물수수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산서성 경찰은 사전에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 16)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2014), 『現代漢語詞典』, 第6版, 北京: 商務印書館, 58쪽.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강제적인 경우 두 가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被’가 『現代漢語詞典』에서 품사는 동사로, 독립적인 여섯 번째 의미항목이 되었다는 것은 ‘被XX’에서 ‘被’가 이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자 단어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3. 模標 ‘被’ 분석

본 장에서는 신조어 생성의 틀인 ‘詞語模’ ‘被XX’에서 불변하는 성분을 나타내는 ‘模標’에 해당하는 ‘被’를 의미적,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李宇明(2002)은 ‘模標’는 단순어이며 ‘詞語模’의 고정적인 성분이고, 반드시 어휘 범화¹⁷⁾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詞語模’을 설명하면서 ‘詞語模’ 형성의 주된 세 가지 연원으로 繼承(계승), 引進(도입), 新造(새로운 창조)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被XX’는 기존의 피동표지 ‘被’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繼承(계승)의 연원에 속한다. 피동표지 ‘被’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被’의 의미 변천과정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 ‘被’의 의미 변천

‘詞語模’인 ‘被XX’에서 불변하는 ‘模標’인 ‘被’는 현대 중국어에서 대표적인 피동표지이다. ‘被’의 시대별 의미 변천은 다음과 같다.

『說文』에서 “被는 작은 이불로 길이는 몸의 반 정도이다. 衣를 따르고, 皮는 소리이다(被, 寢衣, 長一身有半。從衣, 皮聲。)”라고 하였다.

『說文解字今注』에서는 “고대에 ‘被’는 대략 몸의 절반 정도의 길이의 이불이다(被子, 古時被大體一個半人的長度)”라고 하였는데, “衾은 큰 이불이

17) 汎化(범화)는 하나의 형태소가 결합능력이 향상되면서 특정한 의미 항목이 실에서 허로 변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 ‘寢衣’는 작은 이불이다(大被, 寢衣爲小被, 衾爲大被)¹⁸⁾라고 부연하였다. 이를 통해 ‘被’의 본래의미는 몸의 반 정도를 덮는 작은 이불임을 알 수 있다.

『古代漢語詞典』 19)에서 ‘被’의 의미항목은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 ① 이불(被子) 『呂氏春秋·節喪』: “擧馬衣皮戈劍, 不可勝其數”
- ② 미치다(及, 普及) 『尚書·禹頌』: “東漸于海, 西皮于流沙”
- ③ 더하다(加, 加上) 『荀子·不苟』: “國難而治之者, 非案難而治之之謂也, 去難而治被之以治”
- ④ 피동의 전치사(介詞, 表被動) 『史記·屈原賈生列傳』: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피동의 전치사로 사용된 의미항목 ④ 예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믿었는데 의심을 받고, 충성했는데 비난을 받으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로 사기(史記)에 등장한 피동의 예문을 통해 고대漢나라 시기 이미 ‘被’가 피동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近代漢語大詞典』 20)의 ‘被’의 의미항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 ① 원인(由于, 因) 元·缺名 『鴛鴦被』 第四折: “[正旦云]則被你想殺我也! 枉叫了你這三日哥哥。”
- ② 사역, 피동(讓, 爲) 『三遂平妖專』 第18回: “卻說文招討正坐在交椅上, 驀被一人攔腰抱過一邊, 離交椅有五七步路。”
- ③ 말에 안장을 설치하다(給馬配鞍) 敦煌變文 『太子成道經』: “大王問知, 遂遣車匿被朱鬃白馬, 遣太子觀看。”

피동표지를 나타내는 의미항목 ②의 예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8) 宋易麟(2004), 『說文解字今注』,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616쪽.

19)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2014),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47쪽.

20) 許小峰(2008), 『近代漢語大詞典』, 北京: 中華書局, 76쪽.

② 『三遂平妖專』 第18回: “卻說文招討正坐在交椅上, 驀被一人攔腰抱過一邊, 離交椅有五七步路(각설하고 文招討가 때마침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허리를 잡혀서 옆으로 옮겨지니 의자에서 5보에서 7보정도 떨어져 있게 되었다.)”로 이 예문을 통해 ‘被’는 근대에도 여전히 피동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現代漢語詞典』²¹⁾ 제6판에서 ‘被’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의미항목을 가지고 있다.

- ① 명사)이불(被子)
- ② 덮다(遮盖)
- ③ 만나다, 부딪치다(遭遇)
- ④ 개사)피동문에 사용된다. 문장에서 주어는 수동자이고, 행위자는 ‘被’뒤에 위치하나 자주 생략된다.(用在句子中表示主語是受事, 施事放在被字後, 但往往省略) 예) “那棵樹被大風刮倒了。”, “他被選爲代表。”
- ⑤ 조동사)동사 앞에서 피동구를 구성한다.(用在動詞前構成被動詞組)
예) “被壓迫”, “被批評”, “被剝削”
- ⑥ 동사)用在動詞或名詞前表示情況與實不符或者是被強加的(含諷刺, 戲謔意)(동사 혹은 명사 앞에서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혹은 강제적인 것을 나타낸다, 풍자와 조롱의 의미 함축한다) 예) “被小康”, “被就業”

『現代漢語詞典』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被’의 다양한 용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피동표지를 의미항목 ④와 ⑤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被XX’의 의미는 의미항목 ⑥에 수록되어 있다.

상술한 문헌의 의미항목 분석을 통해 ‘被’의 본래의미부터 본 연구대상인 신조어 ‘被XX’까지의 시대적 의미 변천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21)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2004), 『現代漢語詞典』, 第6版, 北京: 商務印書館, 58쪽.

작은 이불(본래의미) → 덮다 → 더하다, 가하다 → (안 좋은 일을) 당하다
 → 피동의 의미 → 강제적으로 ~하다(被強迫),
 (사실과 다르게)~라고 여겨지다(被認定爲)

정리하면, ‘被’는 원래 실사로 ‘작은 이불’이라는 본래의미에서 ‘덮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고, 연이어 ‘더하다, 가하다’, 나쁜 일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파생시켰다. ‘당하다’라는 의미의 ‘被’가 타동사 앞에 쓰이면서 문법화²²⁾ 되어 피동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용법은 전국 말기에 생겨났으나,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다가 漢代에 들어서면서 자주 사용되었다. 漢末에 ‘被’가 행위자를 이끄는 형식이 출현한다. 그러나 당시 구어에 가까운 글에서만 출현했다. 隋唐이후 문언문에서는 기타 피동 형식을 썼으나 비교적 구어에 근접한 글과 시에서는 ‘被’가 기타 피동 형식을 대체하게 되었다²³⁾.

현대중국어에서 ‘被’는 대표적인 피동표지이다. ‘被XX’에서 ‘被’는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혹은 강압적인 것을 나타낸다”²⁴⁾라고 했으므로 이는 의미상 외부에 의해서 일을 당하는 피동과 연관되어 있다. 즉, ‘被XX’는 ‘당하다’와 피동표지 ‘被’의 의미가 잔존하는 ‘의미체류’로 볼 수 있다. 王文斌(2014)²⁵⁾은 의미체류란, 하나의 형태소가 문법화 정도와 상관없이 그 원래 의미가 많던 적던 여전히 허화를 거친 성분 안에 체류하여 그 의미와 문법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지어 말하면, ‘被XX’에서 ‘被’는 ‘당하다’와 ‘피동’의 의미체류를 가지고 강제로 혹은 타의에 의해 조작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被XX’의 ‘被’가

22) 문법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실제적인 단어가 의미가 허화 되어 오로지 문법기능을 나타내는 허사 혹은 접사 등의 문법 성분을 가리키거나 허화 정도가 낮은 문법 성분이 허화 정도가 높은 문법 성분으로 발전된 것을 가리킨다. 의미의 허화는 문법화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王文斌 外(2014:5)

23)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編(2012), 『古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5쪽.

24) 用在動詞或名詞前表示情況與事實不符或者是被強加的(含諷刺, 戲謔意)

25) 王文斌 外(2014), 『論英漢類詞綴的語法化和詞匯化』, 外語教學 第35卷 第5期, 5쪽.

되므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채 개념이 확장된 의미 범화(汎化)이며, 기존의 피동표지 ‘被’의 영향으로 통사적으로도 제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被’의 의미 변천 과정을 통해, 현대 중국어에서 ‘模標’인 ‘被’의 의미 특징은 [+피동성]에 부가적으로 [+무기력] [+타의 혹은 원하지 않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구조 분석

‘被XX’에서 ‘被’의 구조 분석은 전통적인 피동표지 ‘被’와의 비교 대조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被’가 구성하는 피동문의 두 가지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NP₁ + 被+ NP₂ + VP

(4) 那棵樹被大風刮倒了。(그 나무는 바람에 넘어졌다.)

② NP₁ + 被+ VP

(5) 那棵樹被刮倒了。(그 나무는 (바람에) 넘어졌다.)

趙艷梅(2012)는 ‘被XX’ 어휘군을 통사적 관점에서 기존의 피동용법과 비교한 후 다음과 같이 ‘被XX’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였다²⁶⁾.

첫째, ‘被XX’ 문장의 경우 피동문의 화제주어인 NP₁가 출현할 때도 있고, 출현하지 않을 때도 있다.

(6) 日前, 西北師範大學知行學院數百名畢業生遭遇“被就業”。

(汽車中國 2016-6-29)

(현재 서북사범대 지행대학의 수백 명 졸업생이 취업으로 조작되었다.)

(7) “被結婚”讓我臨戰脫逃。(騰訊網 2009-8-17)

(결혼설은 나를 싸움에서 도망치게 한다.)

26) 趙艷梅(2012), 「新被字句的句式變異和語義陰略」, 南京理工大學學報, 第25卷 第4期, 88-89쪽.

예문(6)을 보면 “被就業”에 대한 화제주어는 수백 명 졸업생으로 화제 주어
가 출현하였으나, 예문(7)에서 “被結婚”은 전체 문장에 대한 주어이지 화제
주어는 아니므로 ‘被XX’의 화제주어는 출현하지 않는다.

둘째, 피동문에서는 NP₂ 가 행위자인데, ‘被XX’에서는 통상 출현하지 않는다.

(8) 言承旭回應“被結婚”：有喜訊一定馬上告訴大家。(大洋网 2017-01-05)
(엔청쉬는 결혼설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모두에
게 알려줄께요.)

(9) 老子們都是被自願的。(微博) (우리들은 모두 강제적으로 지원했다)

(10) 公益事業更應當是一種自願，非被自願。(微博)

(공익사업은 더욱이 일종의 지원이어야지 강제적 지원은 아니다.)

예문(8)의 “被結婚”의 ‘被’뒤에는 피동 표지 ‘被’와 같이 행위자가 출현하지
않는다. 예문(9)과 예문(10)의 “被自願”에서도 ‘被’뒤에 행위자가 출현하지
않는다.

셋째, 피동문에서 VP를 핵심으로 봤을 때, ‘被XX’에서 VP 내부의 술어 동
사는 생략된다. 이는 주요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 주요 혹은 부수적인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술어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被’뒤에 각각 동사,
명사, 형용사가 출현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예문(11)과 (12)는 ‘被+ 동사’ 구조에서 주요 동사가 생략된 예문이다.

(11) 2012年春節，你被相親了嗎？(微博)

(2012년 설날, 강제로 선 봤니?)

(12) 獨在異鄉爲剩客，每逢佳節被相親！(微博)

(홀로 타향에서는 대접 받지 못하는 손님이다. 명절만 되면 강제로 선을
본다!)

위의 두 예문(11)(12)에서 '被相親'의 의미는 '被強迫相親'으로 '強迫'라는 주요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예문(13)과 (14)은 '被+명사' 구조에서 주요 동사 혹은 부수적인 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 있는 예문이다.

(13) 又一次的被高鐵了。(微博) (또 한 번 고속철도를 강제로 타게 되었다.)

(14) 你的規則就是被潛規則。(微博) (당신의 규칙은 강제적 관행이다.)

(13)과 (14)의 예문에서 명사는 생략된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로 볼 수 있다. (13)의 의미는 주요 동사 '強迫'와 부수 동사 '坐(앉다)'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14)에서는 주요 동사 '強迫'와 부수 동사 '實施(실시하다)'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被+형용사' 구조에서 주요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다.

(15) “被滿意”現象屢見不鮮, 人們早就習以為常。(微博)

(만족으로 포장된 현상은 흔하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졌다.)

(16) 不能讓貧困的人胡里胡塗被小康。(人民網 2015-03-10)

(빈곤한 사람이 어수룩하게 소강 수준²⁷⁾으로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위의 예문에서 (15)(16)는 '被'뒤 직접적으로 형용사가 오면서 주요 동사

27) 小康水平: [신조어] 중등 정도의 생활수준. [국제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기준을 생활필수품의 소비지출이 총 소비지출의 40-50%를 차지하고, 1인당 연평균 소득 100달러 정도로 보고 있음] 본 논문에 출현하는 '소강(小康)'은 중국에서 경제 수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휘로 의식주가 해결되는 먹고 지낼만한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한국어 어휘가 부재하다고 보아 소강 혹은 소강 수준이라고 직역하였음.

‘認爲’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지어 말하면, ‘被XX’는 화제주어 출현 여부, 행위자의 출현 여부, 술어 동사의 생략 측면에서 전통적인 피동표지 ‘被’자 구문과는 구조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4. ‘模槽’ ‘XX’ 분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출한 ‘被XX’ 110개를 대상으로 하여 ‘詞語模’ ‘被XX’에서 가변하는 ‘模槽’인 ‘XX’를 의미적,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李宇明(2002)은 ‘模槽’는 단순어 또는 합성어로 이루어지며 ‘詞語模’의 비고정적인 성분으로 화자의 주관적 표현의 수요에 따라 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의미적으로는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는 음절수와 품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의미 분석

‘詞語模’ ‘被XX’에서 비고정적인 성분을 나타내는 ‘模槽’인 ‘XX’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어휘들은 의미상 총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XX’의 의미 분류

도달목표나 가치	被民主, 被小康, 被專家, 被中產階級, 被成名, 被出名, 被就業, 被通過, 被長大, 被成名, 被录取, 被先進, 被和諧, 被民意, 被全勤, 被通過, 被發展, 被奧數, 被進步, 被和諧 등
이상적 생활수준	被幸福, 被繁榮, 被富裕, 被高雅, 被滿意, 被平均 등

경제 수준 및 수입	被漲工資, 被房奴, 被買房, 被股東, 被會員, 등
사회적인 사건	被車禍, 被失蹤, 被自殺, 被跳樓, 被有罪, 被猝死 등
사회적인 현상	被小三, 被高鐵, 被高速, 被六環, 被投票, 被自願 등
일상사	被用水, 被喝茶, 被花錢, 被省錢, 被發燒, 被結婚 등
기타	被牆, 被經歷 등

첫 번째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가치이다. 예를 들면, '民主(민주)', '小康(소강)', '專家(전문가)', '中產階級(중산층)'과 같은 어휘군으로 이는 현 중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나 목표이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생활수준을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예를 들면, '幸福(행복하다)', '繁榮(번영하다)', '富裕(부유하다)', '被高雅(고상하다)'와 같은 어휘군으로 높은 생활의 질에 대한 중국인들의 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범주를 넓힌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어휘는 모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가치로 분류할 수 있으나 두 번째가 형용사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의미상 생활의 질적 측면과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는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생활,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단어이다. 예를 들면, '漲工資(급여가 오르다)', '買房(집을 사다)', '漲薪(급여가 오르다)', '房奴(하우스 푸어)'등으로, 경제 활동의 지표인 급여와 거주에 대한 중국인들이 관심을 반영한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예를 들면, '失蹤(실종되다)', '自殺(자살하다)', '車禍(차사고)'와 같은 단어들이 'XX'에 등장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예를 들면, '相親(선을 보다)', '時代(시대)', '高鐵(고속철도)'와 같은 어휘군이다. 현 시대에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반영하는 어휘들로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된다.

여섯 번째는 일상사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예를 들면, '用水(물을 쓰다)', '喝茶(차를 마시다)', '花錢(돈을 쓰다)', '省錢(돈을 아끼다)', '發燒(열이 나

다), ‘結婚(결혼하다)’등이다. 언어생활이 사용자들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被XX’의 사용 범위가 확장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 ‘XX’의 분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달 목표 혹은 가치와 사회 현상이었다. ‘XX’의 의미 분석을 통해 ‘被XX’가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지칭할 어휘적 수요에 의해서 발생한 신조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혁 개방 후 중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목표 중심, 성과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 관련 어휘에 다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의 경제적 관심이 어휘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被XX’의 조어력이 향상되면서 ‘XX’의 의미 범주가 확장되어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표현에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변화에 민감한 어휘는 어휘 내의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쉽게 변하지만, 사회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나 개인의 발화에 그치게 된다면 신조어라는 체계에 속할 수 없다. 대중들 사이에서 돌고 돌면서 점차 신조어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된 것이다²⁸⁾. ‘被XX’는 중국인들의 사회 인식을 반영한 신조어로 그들의 언어적 수요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 응용 범위 확장을 통해 규범적 언어로 정착되었다.

2) 구조 분석

‘詞語模’ ‘被XX’에서 비고정적인 성분을 나타내는 ‘模槽’ ‘XX’의 위치에 올 수 있는 어휘를 품사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명사성 성분 : 小三 代表 高速 專家 民主
- ② 형용사성 성분 : 幸福 繁榮 富裕 高雅 開心

28) 최윤경(2009), 중국개혁개방과 신조어, 서울: 제이앤씨, 50쪽.

- ③ 동사성 성분 : 自殺 就業 增張 捐款 贊成
- ④ 동목구 성분 : 漲工資 投票 臉紅 改名

‘被XX’는 등장 이후에 강한 조어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被XX’에서 ‘模槽’인 ‘XX’에는 명사(N), 형용사(A), 자동사(Vi), 구(VP)가 올 수 있다.

아래의 [표2]는 ‘被XX’에서 ‘XX’자리에 각각 명사, 형용사, 동사, 동목구가 오는 경우인데, 이 중 명사는 많은 경우는 명사 겸 형용사(名形詞)이기 때문에 명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분류하였다. 동사의 경우는 통상 자동사가 등장하나 ‘被贊成’와 같은 타동사도 위치할 수 있다.

음절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XX’의 위치에는 대부분 이음절 단어가 위치하며 다음절도 가능하다. ‘被精神病’, ‘被中產階級’, ‘被潛規則’의 경우처럼 세 음절 혹은 네 음절의 명사도 위치한다.

[표 2] ‘XX’의 품사별 분류

명사				
被小三	被代表	被高速	被專家	被民主
被幸福	被繁榮	被富裕	被高雅	被義務
被高鐵	被精神病	被富豪	被單位	被房奴
被特長	被平均	被球迷	被智慧	被愛心
被合法	被小康	被時代	被寂寞	被健康
被孩奴	被潛規則	被股東	被名人	被主演
동사				
被自殺	被就業	被增張	被捐款	被贊成
被失蹤	被學習	被相親	被感動	被開心
被進步	被索取	被娛樂	被鼓掌	被長大
被發展	被支持	被結婚	被已婚	被代言
被自願	被經歷	被忏悔	被通過	被偉大
동목구				
被漲工資	被投票	被臉紅	被用水	被喝茶
被改名				

상술한 내용을 통해 ‘模槽’ ‘XX’자리에 명사 겸 형용사, 자동사, 구의 형태가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음절의 명사와 동사의 출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동목구의 출현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被XX’ 어휘군 분석

본 장에서는 ‘詞語模’ ‘被XX’를 통해 만들어지는 어휘군(詞簇)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被XX’ 어휘군 총 110개를 대상으로 의미 분석, 문법 구조 분석, 감정 색채 중심의 화용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1) 의미 분석

‘詞語模’ ‘被XX’로 만들어지는 어휘군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전의 의미항목에 의하면, ‘被’는 강제적인 상황 혹은 사실과는 다르게 여겨지는 상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 高琴(2012)의 ‘被’의 의미를 재분석하여 ‘被XX’ 어휘군의 의미를 다음의 표[3]와 같이 도출하였다.²⁹⁾

[표 3] ‘被XX’의 의미 분류

의미 분류		‘被XX’ 어휘군의 예
강제		被住院, 被当媽, 被自愿, 被捐款, 被全勤, 被加班, 被喝茶, 被贊成, 被辭職, 被鼓掌 등.
조작	기만	被夏蘇, 被繁榮, 被小康, 被增長, 被下降, 被富裕, 被綠化 등.
	언론	被怀孕, 被結婚, 被离婚, 被流產, 被去世, 被戀愛 등.
	능동성	被股東, 被代表, 被就業, 被民意 등.
	사건	被自殺, 被失蹤, 被車禍, 被跳樓, 被有罪 등.

29) 高琴(2012), 「從“被就業”談起一新“被XX”的語義特征」, 北方文學旬刊, 141쪽.

'被XX' 어휘군의 의미를 가장 크게 '강제'의 의미와 '조작'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조작은 사실을 조작한다는 의미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조작하는 것이다. 조작을 국민에 대한 기만, 언론, 능동성,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첫 번째 '강제'의 의미는 '被XX'가 '~로 강제되다', '강압에 의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被自願(강압에 의해 지원하다)', '被捐款(강요로 돈을 기부하다)', '被全勤(강요로 전근하다)', '被加班(강요로 야근하다)' 등의 어휘군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의 압력 혹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被XX'구조를 사용하여 강제성을 나타낸다.

조작의 의미 중 첫 번째는 '기만'의 의미로 실제와 다르게 공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표현한 것으로 '被夏蘇(회복한 것으로 하다)', '被繁榮(번영한 것으로 하다)', '被小康(소강 수준인 것으로 하다)', '被增長(성장한 것으로 하다)' 등의 어휘군이 있다.

조작의 의미 중 두 번째는 '언론'의 의미로, 사실과 무관하게 언론의 조작하여 '선전하다, 기사화하다'라는 의미이다. 매체를 이용 소문을 조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어휘군으로는, 被懷孕(임신한 것으로 되다, 임신설), 被結婚(결혼한 것으로 되다, 결혼설), 被離婚(이혼한 것으로 되다, 이혼설) 등이 있다.

조작의 의미 중 세 번째는 '능동성'으로의 조작을 나타낸다. 대외적으로는 주체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재는 그렇지 않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게 '책임지고 결정하다'는 주체적 위치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被股東(주주가 된 것으로 되다)', '被代表(대표가 된 것으로 되다)' 등의 어휘군이 있다.

조작의 의미 중 네 번째는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다. 사회적 사건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위장하고 조작한다는 의미로 '被自殺(자살한 것으로 되다)', '被失蹤(실종된 것으로 되다)', '被車禍(차사고인 것으로 되다)'와 같은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被XX' 어휘군의 의미를 정리하면 '被XX'가 대체적

으로 강제성과 사실이 아닌 조작에 대한 무기력한 인정을 표현하며 아울러 이는 공권력의 국민 혹은 약자에 대한 기만, 매체에 의한 언론 조작의 의미, 능동성으로의 조작, 사회적 사건에 대한 조작의 의미로 세분화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문법 분석

본 소절에서는 ‘被XX’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성분으로 충당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被XX’의 문법범주를 분석하고자 한다. 범주화 기능³⁰⁾이란 전체 단어나 구의 문법기능의 범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被XX’의 문법범주를 살펴보는 것은 ‘被XX’를 어휘로 인식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의 ‘被XX’ 문장을 통해 ‘被XX’의 문장 성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17) 還轉過關於她的微博，沒想到這麼快就“被自殺”了。(微博)

(그녀가 쓴 웨이보를 올렸는데, 이렇게 빨리 자살로 처리될 줄은 몰랐다.)

(18) 收入又被增長了。(微博) (수입이 또 증가한 걸로 되었다.)

(19) 重慶民衆被富裕而已，爲何會有這麼動人的傳說？(微博)

(충칭의 민중은 부유한 걸로 조작된 것일 뿐이다. 어찌 이러한 감동적인 전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위의 (17)에서 (19)의 예문은 ‘被XX’가 모두 술어로 사용된 문장이다. 예문(17)에서 ‘被自殺’는 ‘자살로 처리되다’, 예문(18)에서 ‘被增長’은 ‘증가한 것으로 되다’, 예문(19)에서 ‘被富裕’는 ‘부유한 것으로 조작되다’의 의미로 문장에서 술어의 역할을 한다. 예문(17)과 (18)의 “被自殺了”와 “被增長了”에서는 동태조사 ‘了’가, 예문(19)에서는 문장 말미에 쓰이는 조사 “而已”가 ‘被XX’뒤에 위치하여 문장 내에서 술어의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0) 품사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또 다른 '被XX'의 예문을 통해 문장 성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20) 民族的靈魂已隨GDP的被增長而消亡。(微博)

(민족의 영혼은 이미 GDP가 증가된 걸로 (조작)됨에 따라 소멸된다.)

(21) 爲了達標, 便出現了“被就業”現象。(微博)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취업된 걸로 조작” 하는 현상이 출현했다.)

(22) 我快被小康的媽媽送進整形医院了。(微博)

(나는 곧 소강 수준이 될 엄마를 성형외과로 보냈다.)

(23) 聽說此人居然不憚的說出“被自殺”三个字。(陳風笑·官仙)

(듣자하니, 이 사람은 거리낌 없이 “자살로 조작(위장)”이라는 세 글자를 말한다고 한다.)

위의 예문 (20)에서 (23)의 '被XX'는 문장 내에서 명사구로 사용되었다. 예문(20)에서는 '被增長'은 개사 '隨'의 목적어의 역할을, 예문(21)에서 '被就業'은 명사 역할을, 예문(22)에서 '被小康'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예문(23)에서는 '被自殺'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상술한 예문 분석을 통해 '被XX'가 가지는 문법범주는 명사 겸 동사로 정리할 수 있다. 품사가 명사일 경우는 문장 내에서 주어 혹은 관형어의 역할, 품사가 동사일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3) 화용 분석

감정 색채는 일종의 화용적 분석에 속한다. '被XX'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 현상을 반영하는 '詞語模'이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인 의미색채를 가질 것으로 추측되는 바, 본 연구에서 추출한 110개의 '被XX'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 색채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일반 어휘가 '被XX'라는 '詞語模'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중국의 사회 현실

을 반영하는 사회고발적인 어휘로 탈바꿈한다. 본 연구를 통해 ‘XX’가 나타내는 의미의 절반 이상이 도달 목표나 가치, 사회 현상으로 분석되는바 사실과 다르게 강압으로 여기지는 것은 모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 장 1)절에서 분석한 의미 분류를 바탕으로 각각 예문을 하나씩 추출하여 ‘被XX’의 감정 색채를 분석해 본다.

(24) ‘강제’의 의미

被捐款了, 其實不是恨捐款, 是恨錢到了貪官的包里。(微博)

(강제로 기부했다. 사실 기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탐관들의 주머니 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싫다)

(25) ‘기만’ 조작의 의미

大家都被小康了吧。自己給自己出題, 自己定標準, 自己給自己打分, 自演自看。(微博)

(모두가 다 소강 수준으로 포장된 것이겠지. 내가 나한테 문제를 내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점수를 주고 스스로 연기하고 본다.)

(26) ‘언론’ 조작의 의미

曾多次“被懷孕”-經過努力, 朱麗倩終於有了好消息, 劉德華非常開心, (微博)

(일찍이 수차례 임신설이 있었다. 노력을 통해 마침내 주리칭은 좋은 소식을 생겼고, 리우더화는 매우 기뻐하였다.)

(27) ‘능동성’ 조작의 의미

這樣做的話, 中國人就“被代表”了, 我沒說話, 却被認為中國人都喜歡無恥的抄襲。(微博)

(이렇게 한다면 중국인은 대표로 포장되는 거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인이 모두 좋아하는 치욕적이지 않은 표절이 된다.)

(28) ‘사건’ 조작의 의미

那個被跳樓的孩子, 是父母的孩子, 也是我們的孩子。(微博)

(그 투신으로 결론 난 아이는 부모의 아이이자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예문(24)의 “被捐款了(강제로 기부했다)”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에 의한 기부의 상황과 기부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나타낸 문장이다. 예문(25)의 “大家都被小康了吧(모두가 다 소강 수준으로 포장된 것이겠지)”를 보면 실체는 소강 수준이 아님에도 소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정부 처사에 대한 무기력을 나타낸다. 예문(26)의 “被怀孕(임신설)”은 매스컴 기사에서의 사실이 아닌 오보를 나타낸다. 예문(27)의 “中國人就“被代表”了(중국인은 대표로 포장되는 것이다)”에서는 표절임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대표가 된 것에 대한 실의를 표현했다. 예문(28)의 “那個被跳樓的孩子(그 투신한 것으로 된 아이)”에서는 투신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투신한 것으로 판정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함, 아이에 대한 연민을 표현했다.

예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被XX’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색채를 전달한다. 그러나 예문(26)처럼 ‘언론’ 조작을 통한 ‘기사화, 선전의 의미’는 완전하게 부정적인 의미 색채로만 볼 수 없다. 이는 단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소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체의 연예 기사에서 자주 다루지는 사실과는 다른 기사화 혹은 선전의 의미이므로 부정적인 감정 색채가 아닌 중성적인 감정색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언론 매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실과 다른 오보, 매체 기사의 선전, 조작을 나타내는 ‘被XX’를 제외하고 나머지 ‘被XX’는 모두 의미상 부정적 어감을 나타낸다. 중국인들은 ‘被XX’의 사용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경향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결 어

본 연구는 인터넷 신조어 ‘被XX’를 李宇明의 ‘詞語模’ 이론을 분석 틀로 하여 의미적, 구조적, 화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인터넷 신조어 ‘被XX’는 중국 내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신

조어로 외부의 강압에 의해 약자가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수요로 생겨났다. 국가나 공공 기관의 권력 앞에서 개인이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혹은 비자발적,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면서 ‘被XX’구조는 수많은 어휘를 파생시켰다. ‘被XX’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중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면서 마침내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로 정착, 어휘의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被XX’의 ‘模標’인 ‘被’는 漢代 출현 이후 줄곧 사용된 피동표지의 ‘被’에서 의미 체류와 범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被’의 의미 특징은 기존의 [+피동성]에 부가적으로 [+무기력], [+타의 혹은 원하지 않음]으로 정리된다. 구조적으로는 화제주어와 행위자의 출현, 술어 동사의 생략 측면에서 전통적인 피동표지 ‘被’와 차이를 보인다.

‘被XX’의 ‘模槽’인 ‘XX’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의 품사와 동목구가 위치하며, 대부분 이 음절이나 명사 혹은 동목구일 경우 삼 음절 이상도 가능하다. ‘XX’에 위치하는 어휘들의 의미는 크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가치, 이상적인 의미의 생활수준을 묘사하는 형용사, 경제생활 및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단어, 사회사건, 사회 현상, 일상사로 분류된다.

‘被XX’ 어휘군이 가지는 전체적인 의미는 크게 강제와 조작이나 조작은 세 부적으로 기만, 언론의 선전, 능동성, 사건의 조작이라는 네 가지 의미로 분류된다. 화용적 측면에서 ‘被XX’는 부정적인 사건과 상황에 사용되므로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범위가 확장되면서 일상사를 나타내는 경우에까지도 사용되는 개방성도 지니고 있다. ‘被XX’의 어휘군은 문장 내에서 많은 경우 술어로 사용되거나 주어, 관형어로도 사용된다.

‘被XX’의 주체는 늘 약자이고,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다. 중국 네티즌들은 ‘被XX’를 사용하여 강한 권력 앞에서 억울함과 무력함을 표현해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시민 의식의 성장에 대한 반영이며,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폭로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바이두 백과사전 (<http://wapbaike.baidu.com/item/>)
- 북경어언대학교 코퍼스(BCC)(<http://bcc.blcu.edu.cn/>)
- 최영경, 『중국개혁개방과 신조어』 서울: 제이앤씨, 2009.
- 李宇明, 『詞語模』,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校出版社, 1999.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宋易麟, 『說文解字今注』,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2004.
- 許小峰, 『近代漢語大詞典』, 北京: 中華書局, 2008.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編, 『古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2.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第6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4.
- 손영실, 「현대 중국어의 발생과 수사 조어법」, 중국학연구. 제54집, 2010(12).
- 시정곤,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2006, 31권 0호.
- 曾丹·胡蝶, 「流行結構“被XX”的語義、語用分析」, 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7卷, 第3期, 2011(6).
- 陳文博, 「漢語新型“被+X”結構的語義認知解讀」, 當代修辭學 第四期, 2010.
- 高琴, 「從“被就業”談起-新“被XX”的語義特征」, 北方文學旬刊, 141쪽. 2012(10).
- 季小民, 「新被字句中“被-”標記的類化與泛化」,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2).
- 劉倩, 「“新被字句”的心智研究」, 山東外語教學, 2014(1).
- 劉志, 「試論近代漢語中的重疊式詞語模」, 長沙理工大學學報, 2006(2).
- 羅敏, 「網絡語言中,“被”的類詞綴化及構成新詞的語義特点」, 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 2010(6).
- 孫莎莎, 「現代漢語新興“被X”格式研究」, 南京師範大學: 南京師範大學, 2012.

- 汪家靚,「現代漢語類詞綴的語義虛化研究」,環球人文地理,2014(2).
- 王文斌 外,「論英漢類詞綴的語法化和詞彙化」,外語教學 第35卷 第5期,2014.09.
- 夏艾青,「從“被+X”看網絡語言對傳統語言規則的結構」,新聞愛好,2012(13).
- 趙艷梅,「新被字句的句式變異和語義陰略」,南京理工大學學報,第25卷 第4期,2012.
- 張明輝·于瑤,「現代漢語類詞綴研究總述」,邯鄲學院學報,2014(4).
- 鄭月琴,「新“被XX”結構的認知語義學解讀」,語言本體研究,2014.

Abstract

A Study on The Mold of Words 'Bei(被)XX'

Park, Heung-soo, Ko, Eun-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nternet new words 'BeiXX' independently.

Recently focusing on the Internet and the media, a series of 'BeiXX' semantic group have appeared such as 'beijiuye', 'beizisha', 'beixiaokang'. 'BeiXX' is called as 'new Bei construction', though high frequency, have settled in a newly coined word, in 2014 it was finally included in the dictionary. This means that 'BeiXX' has gained an independent position as an item.

This study based on various kind of internet materials and the corpus, extract 'BeiXX' structure, on the basis of Word's Mold theory, analyze its semantic meaning, structure, and usage.

Key words: word's mold, BeiXX, new 'Bei' construction, internet words, popular structure of Chinese language

투고일: 2017. 1. 10. / 심사일: 2017. 1. 15.~ 2017. 2. 13. / 게재확정일: 2017. 2. 20.